

研究 古典 東 泰

第 45 輯

翰 林 大 學 校
泰 東 古 典 研 究 所

2020. 12.

金石錄

錄

荀子勸學篇中語
書于閱經樓
青溪任昌淳



석전의 상징성과 향교 석전의 식민지적 변용*

장순순**

〈차 례〉

1. 머리말
2. 유교제례로서 석전의 상징성
3. 일제강점기 향교 석전의례의 변화
4. 조선총독부의 지역유림 통제와 석전의 활용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유교제례인 문묘 석전이 조선총독부의 유림정책 속에서 어떻게 변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조선왕조는 건국 초기부터 석전을 국가에서 주관했다. 우리나라 문묘에는 우리나라 18현이 중국의 유현들과 함께 석전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과 문묘 종사에 주자학의 도통이 강조되었다는 점이 중국과 다르다. 그리고 성균관과 전국 향교에 문묘를 설치하여 국가 차원에서 석전으로 거행한 것은 조선 왕조의 이념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조선왕조의 정체성을 내외에 선언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일제는 통감부 시기부터 유림들의 활동 공간인 향교를 통제했다. 강점 직후, 향교가 총독부와 일본인 관리들의 통제 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향교의 기능과 역할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더불어 석전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첫째, 문묘 석전의 주관자인 제관 및 참여자의 변화를 들 수 있으며, 둘째, 석전 제문의 날짜 표기·독축(讀祝)방식·날짜 변경, 셋째, 양무 및 계성사 향사의 일시적인 폐지, 넷째, 석전의례 중 서고식(誓告式) 추가, 마지막으로 경학원과 향교의 문묘 개방과 일반인 출입의 허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총독부가 '원활한' 식민통치를 위해 유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석전의례 속에서 오랫동안 지속해 온 조선의 유교적 전통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자신들의 통치 권력의 현재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심지어 석전행사를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경학원 명륜당과 전국 향교를 훈례식장으로까지 개방한 조치는 문묘로 상징되는 조선의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5347)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교수 hyongae@hanmail.net

전근대적 사회 질서를 파괴함으로써 신민지 통치를 ‘근대화’로 미화한 것이었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에 앞서 총독부는 전국 유림의 동향 파악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석전을 강연회 등 각종 행사와 연계시킴으로서, 식민지 조선인에게 식민통치의 당위성을 선전하여 일제의 식민통치에 순종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일제의 침략 전쟁과 식민통치에 철저하게 이용하였다. 이로써 석전은 기존의 제사로서의 기능이나 신성함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일제가 일으킨 침략전쟁의 적극적인 선전의 장이 되었다.

[주제어] 문묘(文廟), 석전(釋奠), 향교(鄕校), 경학원(經學院),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1. 머리말

조선왕조의 건국을 주도했던 신진사대부들은 고려시대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던 불교와의 융합관계를 거부하고 철저하게 성리학적 이념에 입각한 사회개혁을 달성함으로써 새로운 통치 시스템을 정비하고자 하였다. 때문에 성리학적 이념에 입각한 교화는 조선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학교를 교화의 근본으로 삼고 ‘일읍일교(一邑一校)’의 원칙에 따라 중앙에는 성균관을 전국 지방에는 향교를 설치했다. 그리고 그 안에 문묘(文廟)를 설치함으로써 선현에 대한 정기적인 제향을 통하여 유교적인 이념을 널리 보급하고자 노력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유교가 정치 방법적인 면에 국한하여 작동된 것이라면, 조선 시대에는 관혼상제·충신·효자·열녀 등을 장려하여 정표(旌表)하는 등 민풍의 심층에 이르기까지 작동함으로써 교화를 전제로 한 성리학적 이념을 구현하게 된 것이다. 그 국가 구성원에 대한 교화의 중심에 향교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향교는 조선 왕조의 사회개혁 시스템의 중심축이었다고 할 수 있다.¹⁾

1) 국가 구성원에 대한 교화의 면에서 향교의 기능은 향교의 건물 배치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향교 건물의 배치는 향교가 위치한 지역적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대략을 보면, 유생들이 학문을 배우는 공간으로서 강학장소인 명륜당이 맨 앞에 설치되고, 그 좌우로 유생들이 기거하며 공부하던 동재·서재가 마주하고 있다. 명륜당 뒤에는 공자와 선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례를 위한 대성전이 자리하고, 대성전 좌우에 동무(東廡)·서무(西廡)가 마주하고 있다. 명륜당과 동무·서무 및 대성전을 둘러싸고 성현의 제사와

조선시대 향교는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과 사회교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공교육 기관이었다. 그러나 후기로 가면서 학교로서의 향교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면서 유교선현에 대한 향사(享祀) 기능이 주가 되었으며, 지방 유림들의 집결 장소이자 향론(鄉論)을 주도하는 중심처로 기능하며 존속하였다. 고종이 즉위하고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향교는 일시적이거나 다시 부흥의 기회를 갖기도 하였으나 1894년 갑오개혁으로 과거제가 철폐되면서 향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묘향사 등을 통한 사회교화 기능은 근대시기에 들어가면서 더욱 강화된 면이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문묘에서 제사를 드리는 석전이 지방 향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행사가 될 정도였다.

본 연구에서는 근대 이후 문묘의 석전, 특히 향교에서 시행된 정기적인 제례인 석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향교에 관한 연구가 주로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집중되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최근에 들어 일제강점기 향교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석전에 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석전은 일제의 유림정책 속에서 조금씩 다뤄지거나 경학원 및 향교의 기능을 설명하는 가운데 언급되는 정도로, 향교의 석전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여전히 드물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²⁾

이에 본고에서는 근대 향교 연구의 일환으로 일제강점기 향교에서 거행된

유생 교육에 필요한 강당과 향사에 필요한 공간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배치는 중앙교육기관인 성균관을 그대로 본뜬 것이다.

- 2) 일제의 유림정책 속에서 경학원이나 향교에서 거행된 석전을 다룬 연구로는 다음 논문이 있다. 김명우, 『日帝 植民地時期 郷校 研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이명화, 「조선총독부의 유교정책(1910~1920년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 1993; 류미나, 「식민지권력에서의 ‘협력’과 좌절-經學院과 향교 및 문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3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5; 류미나, 「일본의 ‘공자묘 대중화’ 정책과 조선 내 공자묘 인식의 변화-총독부의 공자묘 개방정책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64,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0(2010a); 류미나, 「19C말~20세기 초 일본제국주의의 유교 이용과 조선 지배」, 『동양사학연구』 111, 동양사학회, 2010(2010b); 김영희, 「일제강점기 경학원 석전(釋奠)의 변화 양상 소고」, 『한국무용사학』 8, 무용역사기록학회, 2008; 정일균, 「일제의 무단통치와 경학원」, 『사회와 역사』 76, 한국사회사학회, 2007; 정용재, 「20세기초 일제협력유림의 경학원 활동」, 『한국사학보』 56, 고려사학회, 2014.

석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본의 강제병합 이후 전통적인 향교가 어떻게 식민통치의 장으로 이용되었으며, 전근대의 유교적 산물인 석전이 근대와 식민지라는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면서 어떻게 변화되고 ‘변용’되어 갔는지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논지의 전개는 먼저 석전이 지니는 전통적인 상징성에 대해 알아보고, 일제강점기 석전의례의 변화상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조선총독부는 석전을 어떻게 활용했으며, 그것을 통해 지역 유림들을 어떻게 통제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유교제례로서 석전의 상징성

향교의 석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묘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전통적으로 문묘는 유교문화의 총체적 상징으로,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성현을 받드는 사당을 말한다. 석전³⁾은 문묘에서 행해지는 유교제례를 말한다. 석전은 유제(儒祭), 공자제(孔子祭), 석전제, 석전대제(釋奠大祭), 상정제(上丁祭) 등 명칭이 다양하다. 이러한 명칭은 석전이 일반인들의 제사가 아니라 유자 계층, 즉 지배계층의 의례이며 유교의 종사(宗師)인 공자와 유교의 선현에 대한 의례임을 의미한다.⁴⁾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서 유교를 받아들인 삼국시대부터 문묘제도가 수용되었고, 자연히 석전도 봉행되었다.⁵⁾ 이러한 문묘와 석전의 전통은 철저히 계 성리학적 이념에 입각한 사회운영을 지향했던 조선시대가 되면서 더욱

3) 사전에서는 석전을 “전통 사회에서 山川・廟社에 올리던 제사, 또는 학교에서 先聖先師를 추모하기 위하여 올리던 의식”이라고 정의하였다(『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한다.

4) 본래 석전은 공자 이전인 중국의 주대부터 행해졌으나 공자 사후부터는 국가적 차원에서 공자를 제사하였다. 공자를 주향으로 한 석전은 한 고조(漢高祖) 12년(195)에 국부의 공자묘에서 친히 석전을 지낸 것이 효시이다. 이후 한 무제(漢武帝) 때에는 유교를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삼고, 국립대학인 태학을 건립하여 문묘에서 석전을 봉행하였다. 중국의 문묘와 석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박종배, 「조선시대 문묘 향사 위치의 특징과 그 교육적 시사·명칭시기 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4-3, 한국교육사학회, 2012 참조.

5) 김명우, 앞의 논문(2008), 128쪽.

더 중시되어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성균관과 향교에 위치한 문묘는 크게 정전인 대성전과 동·서 양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계성사란 사당이 부속되어 있었다. 대성전에 봉사된 신위는 정위와 배향, 동·서 종향으로 나누어진다. 조선시대 성균관의 대성전 전내 향사 위치는 공자를 중심으로 안자·증자·자사·맹자 등 4성이 배향되고, 동·서로 공문 10철과 송조 6현이 종향되는 방식이었다. 처음에는 공문 10철만 종향하다 숙종 40년에 송조 6현이 동·서 양무에서 대성전 전내로 승사되면서 종향위가 16위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중국에서는 전례가 없는 것이다. 한편 양무에는 중국의 유현이 각각 47명씩 총 94명과 우리나라 인물이 각각 9명씩 총 18명이 종사되었다. 조선에서 송조 6현을 대성전 내에 승사한 것은 이들의 덕이나 공이 양무에 종사된 여러 인물들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도통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송조 6현은 공자·맹자와 직접 연결되어야 마땅한 특별한 위상을 차지한다는 의미였다.⁶⁾

이것은 한편으로, 정·주 성리학적 관점의 도통을 확립하여 정·주 성리학이 공·맹 유학의 정통을 계승한 유일한 정학(正學)임을 표방한 것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시대 학문과 교육이 나아가야 할 정·주 성리학적 방향 자체를 정립하고 정당화하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⁷⁾ 이로써 조선후기에는 기존의 공자, 10철, 공문 72현 외에 4성, 22현, 송조 6현, ‘동방 18현’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18현 등 총 133명이 대성전과 동·서무에 나누어 모셔짐으로써 문묘 종사의 대상이 확대되었다.⁸⁾

동방 18현 가운데 설총·최치원·안유는 고려시대 문묘에 종사되었으며,

6) 박종배, 앞의 논문(2012), 6-8쪽.

7) 박종배, 위의 논문(2012), 15쪽.

8) 문묘의 향사 위치는 크게 주향(主享), 배향(配享), 종향(從享), 종사(從祀)로 나누어진다. 중국 당대에 문묘 제도가 정착되면서 주향자는 공자로 확정되었지만, 배향·종향·종사 인물은 시대에 따라 변천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주향·배향·종향의 대상은 대성전에 모셔진 인물들이며 종사의 대상은 양무에 모셔진 인물들이다. 한국 문묘제도의 변천에 대해서는 지두환, 「한국 문묘제도의 변천」, 『국악원논문집』 17, 2008; 박종배, 위의 논문(2012) 참조.

정몽주·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김인후·이익·성혼·김장생·조현·김집·송시열·송준길·박세채 등의 문묘 종사는 주자학 도통의 계승과 당시 정치세력의 권력관계 속에서 많은 논쟁을 거친 후에야 이뤄졌다.⁹⁾

문묘에 우리나라 18현을 종사한 점과 문묘 종사에 주자학의 도통이 강조되었다는 점은 중국 문묘와의 차이점이다.¹⁰⁾ 이러한 사실은 송나라 6현을 중국과 달리 대성전 10철의 자리에 모셨고, 육구연·왕수인·진현장 같은 육왕학 계열의 학자를 모시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이처럼 주돈이에서 주희에 이르는 주자학의 계보를 중시한 것은 우리나라 도학의 계보를 공자·맹자에서 주희를 거쳐 우리나라 주자학자로 잇고자 하는 주자학적 도통의식에서 나온 것이다.¹¹⁾ 이러한 문묘에서 봄과 가을, 매년 2회씩 거행된 제례가 석전이다.

조선왕조는 국초부터 성균관의 대성전에서 국왕이 참여하는 가운데 석전을 거행하였다. 우리나라의 18현을 포함한 총 133명의 유교 성현들이 종사된 문묘에 국왕이 직접 행차하여 석전을 주재한다는 것은 문묘와 석전제가 종묘와 사직에 버금가는 국가적 기념 공간이자 행위라는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의례적 행사임과 동시에 국왕이 몸소 유교적 도덕정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치 행위였고,¹²⁾ 나아가 왕조의 정체성을 내외에 선언한 것이었다.

유교제례로서 석전은 공자를 위시한 유교 성현들의 학문·인격·덕행·사상을 단순한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숭모하고 존중히 여기

9) 중종 12년(1517)에 조광조 등 사림파의 뜻대로 정몽주가 맨 처음 문묘에 종사되었다. 그리고 광해군 2년(1610)에는 이른바 5현이라고 칭하는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이 문묘에 종사되었다. 이후 이이와 성혼이 숙종 8년(1682)에 문묘에 종사되었다. 이후에도 문묘 종사는 계속 추진돼 숙종 43년(1717)에 김장생이 종사되었고, 영조 32년(1756)에는 송시열과 송준길이, 영조 40년(1764)에는 박세채가, 정조 20년(1796)에는 김인후가 종사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종 20년(1883)에 조현과 김집이 종사되었다. 조선시대 문묘 종사 과정에 대해서는 김용현, 『조선 성리학, 지식권력의 탄생』, 프로네시스, 2010 참조.

10) 우리나라 문묘와 중국 문묘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박종배, 위의 논문(2012) 참조.

11) 김용현, 위의 책, 303~304쪽.

12) 이왕무, 「조선후기 국왕의 文廟 행행의 추세와 성격」, 『朝鮮時代史學報』 93, 조선시대사학회, 2020 참조.

며 스승을 높이 하고 진리를 중히 여기는 기풍을 체득하기 위한 향사행위였다. 따라서 양반·유림들에게 석전 참여는 학문으로서 배우고 습득한 유교 성현들의 가르침을 체화한다는 교육목적을 실천하고 유교이념을 내면화하는 과정의 일환이었다. 따라서 석전의 봉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석전은 임진왜란 중에도 거행되었으며,¹³⁾ 석전에 불참한 자에게 과거를 정지시키는 것이 상례였을 정도였다.¹⁴⁾

향교의 문묘인 대성전에 모시는 선현들의 위패는 해당 고을의 크기에 따라 대설위·중설위·소설위로 구분하여 봉안하는 위패의 수를 달리하였다. 대설위는 관찰사가 파견된 계수관(界首官)에 설치되었는데, 성균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대성전에 위패를 모시고, 부·목·도호부 등에 설치된 중설위는 대성전에 공자와 4성·공문 10철·송조 4현을, 동·서무에 동국 18현을 봉안하였다. 그리고 군현에 설치된 소설위는 공자와 4성·송조 4현을 대성전에 모시고, 동·서무에 동국 18현을 봉안하였다.¹⁵⁾

정약용은 『목민심서』 「예전」에서 “문묘의 제사는 목민관이 몸소 행하되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목욕제계하여 많은 선비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적고, 석전은 지방관이 지내야 할 제사 가운데 가장 큰 제사로서 반드시 엄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참여하는 인원, 절차 등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둬으로써 수령의 문묘 제사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3) 『선조실록』 선조27년 5월 계사(16일).

14) 『大東野乘』 「癸甲日錄」, 萬曆 11년, 계미.

15) 19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향교 가운데 대설위는 강릉·원주·충주·청주·전주·경주·상주·안동·황주·해주·평양·영원·함흥이었다. 이 가운데 영원향교는 동서무에 72현·22현은 생략한 채 동국 18현만 봉안하고 있어서 중설위의 형태만 보이는 반면, 진주·김해 향교는 중설위 향교로서 대설위와 동일하게 위패를 봉안하였다. 김명우, 앞의 논문(2008), 130~132쪽.

3. 일제강점기 향교 석전의례의 변화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은 지방 향교의 존립에 일대 변환을 가져온 사건이었다. 관리 선발제도인 과거제가 폐지되면서 성균관과 향교는 존립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단지 문묘에 대한 향사로 기능이 축소되었다. 예조가 폐지되고 학부아문(學務衙門)이 창설됨에 따라서 학부는 별도의 신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895년 학부관제가 실시되면서¹⁶⁾ 성균관 및 향교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1905년 2월 26일에 발포된 칙령 제23호 제1조에서 “성균관은 학부대신에게 소속되어 문묘를 경건하게 받들고 경학(經學)을 익히는 곳으로 함이라”라고 하여 성균관은 문묘를 지키고 경학을 학습하는 정도의 기관으로 규정되었다.¹⁷⁾ 그리고 1907년에는 학부 내에 성균관·향교를 담당할 부서마저 없었다.

더불어 성균관의 축소판인 향교도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통감부 치하인 1908년 10월 성균관 제도를 개정하면서 각 부·군 향교에 직원(直員) 1인을 두어 향교를 수직(守直)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0조의 내용을 보면, “향교에 직원 1인을 두되 관임관으로 하고, 해당 군의 유림 중에서 선발하여 맡기며”, 직원의 역할을 “문묘를 수직하며 향교 서무에 종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직원에게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¹⁸⁾ 이는 향교 직원을 향교 교임으로서 과거처럼 유림의 의결사항에 따라 향교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단순히 직무의 위임을 받아 향교를 지킨다는 의미로 격을 낮추고 무보수의 명예직으로 규정한 것이다.¹⁹⁾ 이어 1910년 4월 26일에는 향교 직원의 사무에 관하여 관할 지방관의 지휘를 받도록 조치하였다.²⁰⁾

병합 직후인 1911년 10월 28일에는 조선총독부령 127호로 문묘에 관한 규정(「문묘직원에 관한 건」)을 정하였다.²¹⁾ 그 내용은 “부군에 있는 문묘에

16) 학부의 개설과 경과에 대해서는 김명우, 앞의 논문(2008), 10~13쪽 참조.

17) 『고종실록』, 고종 42년 2월 26일(양력); 『官報』, 1905년 3월 1일. 「成均館官制」(칙령 제23호).

18) 『官報』, 1908년 10월 31일. 「成均館官制」(칙령 제76호).

19) 정경주, 「한말 향교유림집단의 역사적 성격」, 『어문학교육』 12, 한국어문교육학회, 1990, 85쪽.

20) 『관보』, 1910년 4월 28일, 「학부훈령」 제2호.

직원 1인을 둔다. 직원은 명예직으로 하여 부윤·군수의 지휘를 받아 문묘를 수직하고 서무에 종사한다. 직원의 진퇴는 부윤·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장관이 행한다.”로 되어 있으며, 같은 해 11월 1일부터 시행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부칙에서 “본 명령을 시행할 때는 지금 향교 직원인 자는 본령에 의하여 문묘의 직원을 명한 바가 된 자로 한다.”라고 규정했다. 이로써 향교는 선현들의 사당인 ‘문묘’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는 향교의 존재 의미를 문묘에서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라는 점에 방점을 둔 것으로,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지속되었다.²²⁾

종래 향교는 지역 유림들이 도유사(都有司)·장의(掌議)·유사 등의 교임을 선출하여 수령의 묵인 아래 자치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런데 일제는 통감부치하였던 1908년부터 향교 교임의 직책을 폐지하고 직원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둔 것이다. 이것은 향교를 유림들의 자치적 관할로부터 관청의 직접적인 통제, 즉 일제의 통제 안으로 편입하겠다는 의도이며, 동시에 향촌 사회의 공론을 무시할 수 있다는 행정관청의 우위를 과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²³⁾

이렇듯 향교가 총독부의 통제를 받게 되면서 향교는 그 기능과 지역사회에서 역할 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으며, 향교의 대표적 제례인 석전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²⁴⁾

21)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10월 28일.

22) 조선총독부 직속 유교교육기관인 경학원의 기관지인 『경학원잡지』나 현재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향교문서 등에는 지방 향교가 ‘문묘’로 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에 지역 향교를 ‘문묘’라고 호칭한 것은 향교에서 교육 기능이 빠지고 석전이 향교의 주된 기능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신문자료 등을 보면 ‘향교’라는 명칭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에는 문묘와 향교가 지역 향교의 명칭으로 함께 사용되었음도 알 수 있다. 참고로 村山智順, 『釋奠·祈雨·安宅』, 1938, (『韓國近代 民俗·人類學資料大系』 7, 民俗苑, 2008), 33-45쪽에는 1928년에 총독부가 조사한 향교 명단이 ‘지방문묘 일람’이라 하여 표로 작성되어 있는데, 당시 파악된 ‘향교’ 329개소 모두 ‘문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향교는 문묘라고 언급해야 하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유교선현들을 모시는 사당인 문묘와 구별하기 위해 일제강점기 ‘문묘’를 향교로 기술하고자 한다. 다만 사료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다.

23) 강대민, 『한국의 향교연구』, 경성대출판부, 1992, 290쪽.

24)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향교의 문묘에서 거행되는 제향으로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실시하는 분향례와 선현에게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거행하는 석전제가 있다. 이것들이 정기적인 제향이라고 한다면, 비정기적인 제향으로는 고유제(告由祭), 문묘 수리

1) 제관(祭官) 및 참여자

일제강점기에 거행된 석전의 의례의 변화는 크게 1911년과 1937년 두 시기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석전의 주관자인 제주(祭主)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석전의 주관자가 기존의 대한제국 황제에서 조선총독으로 바뀌었다. 대한제국 시기 석전제는 황제나 왕세자가 친제(親祭)하였다. 황제가 친제할 경우 석전제의 초헌관은 황제가 맡았다. 아헌과 종헌은 성균관장이 겸행하였으며, 황태자가 아헌관을 맡는 것이 관례였다.²⁵⁾ 병합 수년 전부터는 황제를 대신하여 학부대신을 파견하여 이를 대행하게 했다.²⁶⁾ 그러나 병합 후에는 경학원 대제학이 조선총독의 지휘를 받아 석전을 봉행했다.²⁷⁾ 1913년 경학원의 춘계 석전에서는 야마가타(山形) 정무총감, 우사미(宇佐美) 내무부장을 비롯하여 경학원 대제학 박제순, 부제학 이용식, 박제빈, 기타 사성, 집사 등 조선귀족 및 학부국원, 경기도 교육자 등 총독부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²⁸⁾

한편 조선시대 지방 유림들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왔던 향교의 석전에는 경학원의 석전과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참석하지 못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정례화되었다. 군수·면장 등을 포함한 관리를 비롯하여 보통학교의 교사나 직원, 학생들이 주로 참여했고, 지역에 따라서는 경찰이나 헌병대원까지 동원되기도 하였다. 1917년에 개성군 문묘에서 거행된 석전에는 군청 관리 외에 제1·제2 보통학교 직원과 학생, 그리고 지역 유지·신사 등 300여 인이 참배했으며, 강원도 회양군 문묘의 춘계 석전에는 군수 외에 군청 관리 및 헌병분대 관리, 공립보통학교 직원과 학생, 각 면의 유지·신사 등 370여 인이

등으로 위패를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복구시킬 때 올리는 이안제(移安祭) 또는 환안제(還安祭), 그리고 문묘에 각종 재앙이 닥쳤을 때 거행하는 위안제(慰安祭) 등이 있다. 이러한 제향들은 오늘날에도 전국 각지의 향교에서 여전히 거행되고 있다.

25) 조선총독부, 『경학원 향사관계』, 1911-1913, 398-401쪽, 「성균관 문묘 향사에 관한 要項」.

26) 1910년 추계 석전에서는 학부대신 이용식(李容植)이 초헌관을, 성균관장 김유제(金有濟)가 아헌관·종헌관을 맡았다. 조선총독부, 『經學院享祀關係』, 1911-1913, 403쪽.

27) 『經學院雜誌』 1, 1913, 41-42쪽.

28) 『매일신보』, 1913년 3월 15일, 「經學院春季釋奠」.

참여하였다.²⁹⁾ 같은 해 평양부 문묘의 춘계 석전에는 평안남도 장관·평양부윤·대동군수(大同郡守)를 비롯하여 각 관공사립보통학교 직원, 학생, 부·군청 직원, 경무부원, 헌병대 장교, 실업가, 신문기자, 신사 유생 등이 참배하였으며, 심지어 중국 상인, 일본 거주 조선인 관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³⁰⁾

이러한 모습은 일제 강점기 내내 변함이 없었다. 결국 향교가 총독부의 위임을 받은 부윤·군수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면서 석전에서 일제에 협력하지 않는 유림들은 향교로부터 점차 배제되고, 그 운영도 일본인 관리들의 주도로 바뀌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예로부터 향교 직원의 권한에 속했던 석전의 제관 차출도 관의 감독을 받아야 했다. 물론 이러한 총독부의 처사에 대해 유림들의 반발도 있었는데, 강원도 양양군에서 있었던 유림들의 분규가 그 사례이다. 1927년 8월 강원도 양양군 유림들은 군수 채린(蔡麟)이 부임 이후 지역 유림들과 협의도 없이 석전의 제관을 차출하자 유림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며 일대 분규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당시 양양 유림들은 도와 총독부에 대표까지 파송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바가 있었다.³¹⁾

2) 제문의 형식 및 기일의 변경

먼저, 제문의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한제국 당시 성균관에서 거행된 석전제의 제문과 1911년 경학원 춘계 석전의 제문³²⁾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먼저, 왕력과 석전일의 양력 표기법을 들 수 있다. 왕력이 대한제국의 연호인 대한제국 황제의 연호인 융희(隆熙)에서 일본 메이지 천황의 연호인 메이지(明治)로 바뀌어 표기되었다.³³⁾ 그리고 석전일의 날짜 표기를 음력 2월 상정일인 2월 8일 대신 양력 3월 8일로 표기하였다. 이때부터는 상정일

29) 『경학원잡지』 14, 1917, 59~60쪽.

30) 『경학원잡지』 14, 1917, 62~63쪽.

31) 『동아일보』, 1927년 8월 31일, 「鄕校任員問題로 襄陽儒林陳情」.

32) 조선총독부, 『經學院享祀關係』, 1911~1913, 393~395쪽, 534~535쪽; 김명우, 앞의 논문(2008), 132~133쪽.

33) 김명우, 앞의 논문(2008), 132~133쪽에는 성균관 거행 석전 제문과 1911년 춘계석전 제문의 원문이 실려 있다.

은 음력일로 정하되 날짜의 표기는 양력으로 하기 시작했다. 요컨대, 1911년 경학원 춘계 석전일 경우, 상정일이 음력 2월 8일이었는데 그해는 양력 3월 8일이었으므로 3월 8일로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공자의 명칭이 구례의 제문에서는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이었는데, 이때부터는 ‘대성공자(大聖孔子)’로 축약하여 표기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대성지성문선왕’이 중국에서 내린 시호이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기 때문에 ‘대성공자’로 한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밖에도 구례 제문에 있었던 4성 부분도 생략되었다.

한편 독축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1937년 이전의 석전에서 독축 방식은 각위각독식(各位各讀式)과 정위일독식(正位一讀式)의 두 양식이 있었다. 각위일독식은 정위와 함께 배위(4성)에 대해서 각각 별도로 제문을 제작하여 별개로 읽은 것이다. 정위일독식은 정위에 대한 축문 안에 배위한 사람을 포함한 축문을 일독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각 지방의 관례에 따라 달랐지만 대개는 일독식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1937년 석전기일의 개정과 함께 축문의 독식이 정위일독식으로 통일되어서 전국의 각 향교에서는 정위인 공자에 대해서만 독축하고 다른 배위(配位) 이하 각위(各位)에 대해서는 생략하는 것으로 정해졌다.³⁴⁾

한편, 『상변통고(常變通攷)』 권27, 「학교례(學校禮)」의 ‘석전’ 항목에서는 석전일에 대해서 “주현에서는 봄·가을 두 중월(仲月)의 상정일에 지성문선왕에게 석전을 올리는데”라고 되어 있어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이 석전일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오례의』에는 석전의식은 전날 축시 전 5각에 음식을 차리기 시작하여 행사는 축시 전 1각에 하도록 규정되었다.³⁵⁾ 따라서 조선시

34) 村山智順, 『釋奠・祈雨・安宅』, 1938, 22~24쪽(『韓國近代 民俗・人類學資料大系』 7, 民俗苑, 2008).

한편, 村山智順, 『釋奠・祈雨・安宅』에는 기존의 축문 형식과 1937년 석전기일 개정으로 변경된 축문과 홀기의 양식이 제시되어 있다.

35) 『세종실록』 오례 길례의식 주현석전문선왕의 행례편 참조.

조선시대에는 시간을 시(時)와 각(刻)으로 나타냈다. 시는 12지지로 나타냈으며, 각은 시를 1/8로 나누어 15분씩을 단위로 일각, 이각, 삼각, 반각, 오각, 육각, 칠각, 정각이라 하였다.

대 성균관과 향교의 문묘에서 거행된 석전은 자정 직전인 11시 45분부터 음식 차리기 시작하여 자정을 넘긴 12시 45분경에 행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야간에 거행된 석전 봉행은 대한제국 시기까지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강점 직후부터 석전은 야간이 아닌 주간으로 거행 시간이 변경되었다.

1911년 9월에 거행된 경학원 추계 석전은 오전 8시에 시작하여 10시에 마쳤다. 이듬해인 1912년 9월 18일 추계 석전은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11시 40분에 마쳤다.³⁶⁾ 1915년 추계 석전부터는 오전 9시로 변경하여 거행했다.³⁷⁾ 이러한 석전 거행시각의 변화에 대해 당시 유림들로부터 이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18년 춘계 석전을 마친 후 유림들 사이에 석전을 예전처럼 야간에 행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원래 석전은 중국에서 궤리(闕里)에 성묘(聖廟)를 설치하고 밤중에 제사를 설행하였고, 예로부터 성현이 이미 전해 놓은 제례를 변경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석전을 종전대로 축시 전 2각에 설행하는 문제는 논의에 그쳤을 뿐 시행되지는 못했다.³⁸⁾

향교의 석전도 주간에 거행되었다. 『경학원잡지』 지방보고란에는 각 향교에서 경학원에 보고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그것에 따르면 향교의 석전 거행 시간은 지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대부분 오전 9시~12시에 거행되었다.³⁹⁾ 1917년 개성군 문묘의 춘계 석전은 오전 9시에, 회양군 문묘의 춘계 석전은 상오 9시에, 평양부 문묘에서는 오전 8시에 거행되었다.⁴⁰⁾ 1929년

36) 조선총독부, 『經學院享祀關係』, 1911년~1913년, 596쪽.

37) 『경학원잡지』 9, 1919, 38쪽.

38) 조선총독부, 『경학원잡서류철』, 1915년~1920년, 163-171쪽.

39) 일제강점기에 향교에서 거행된 석전은 시간 차이는 있지만 주로 오전에 이뤄졌다. 이러한 상황은 경학원의 기관지인 『경학원잡지』의 「지방보고」에 잘 드러난다. 따라서 대부분의 향교의 석전은 오전 9시~12시 사이에 거행되었다. 그러나 평창군 문묘에서는 오후 8시에 거행되기도 하고(1917년), 안성군 양성문묘(1917년), 함북 무산군(1920년), 평남 개천군(1924년), 함북 회령군(1925년), 안성군 죽산(1930년) 등지에서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규정에 따라 예전대로 오전 1시에 거행된 사례도 확인된다. 회령군 문묘의 경우, 1923년 추계 석전은 오전 2시에 거행되었고, 1924년 춘계 석전은 오전 11시에 거행되었다. 그러다가 1924년 추계 석전부터 오전 1시에 거행되었으며, 1929년 추계 석전까지 오전 1시에 거행되었다. 1930년에는 오전 9시에 거행되었다고 되어 있다. 『경학원잡지』 14(1917)~32(1930), 지방보고란 참조. 김명우는 회령군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석전 시간에는 직원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명우, 앞의 논문(2008), 137쪽, 주36.

40) 『경학원잡지』 14, 1917, 59~63쪽.

파주군 문묘의 추계 석전에서는 상오 10시에 거행되었다.⁴¹⁾ 1940년 충남 서산향교의 춘계 석전은 서산 군수 주재로 거행되었으며, 정오에 거행되었다.⁴²⁾ 그러나 이처럼 대다수 향교에서 오전에 석전을 거행했는데, 이는 석전 후 총독부 지시에 따라 전개된 강연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따른 총독부의 간섭과 해당 지방관청의 편의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총독부는 석전 거행 시간을 밤중에서 주간으로 변경한 것에 이어 1937년부터는 종래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에 지내던 석전 일자를 양력 4월 15일과 10월 15일로 정했다.⁴³⁾ 이로써 석전일은 매년 4월 15일과 10월 15일로 정해졌다. 당시 경학원 대제학 정봉시가 전국 향교 직원 앞으로 보낸 「석전기일을 양력으로 개정한 건」에 의하면 총독부가 음력폐지를 독려하고 있어서라는 것이 석전기일 재지정한 표면적인 이유였다. 석전 기일을 양력으로 바꿔 시행하게 되면서 매월 문묘에서 시행되던 분향례도 양력 1일과 15일로 변경되었다.⁴⁴⁾

3) 양무(兩廡) 및 계성사(啓聖祠)의 향사 폐지

양무는 문묘의 정전인 대성전 좌우에 있는 동무와 서무를 말한다. 동·서 양무에는 중국의 유현이 각각 47명씩 총 94명과 우리나라 인물이 각각 9명씩 총 18명이 총 112명이 종사되었다. 이들 112위는 성격상 공자의 제자(66인) 그 이후 세대에 해당하는 중국의 학자들(37인), 그리고 ‘동국 18현’으로 부르는 우리나라 학자들 18인으로 나눌 수 있다.⁴⁵⁾

41) 『경학원잡지』 30, 1929, 74쪽.

42) 『동아일보』, 1940년 4월 21일, 「瑞山鄕校秋季釋奠祭」.

43) 『경학원잡지』 42, 1937, 「문묘석전 期日 개정의 건」. 한편 석전제는 해방 이후 1953년부터 공자탄일인 음력 8월 27일에 실시해오다가 1956년 다시 음력 2월·8월의 상정일에 거행하는 춘추 석전 방식으로 환원되었다. 국민문화제연구소, 『석전대제』, 1998, 64쪽.

44) 익산문묘의 경우, 석전기일을 양력으로 개정하라는 총독부 지시를 경학원→익산군수를 통해서 2월 24일에 받았다. 익산군수는 이 내용을 익산군 각 면의 면장, 각 공립중등학교장, 각 공사립초등학교장, 그리고 익산에 있는 익산문묘, 여산문묘, 함열문묘, 용안문묘 직원 앞으로 보낸 것이다. 「釋奠期日ヲ陽曆ニ改正ノ件」, 昭和 12년 2월 24일, 『例規』(익산문묘).

45) 박종배, 위의 논문(2012), 8~10쪽.

한편, 계성사는 조선후기에 공자를 비롯한 중국 4성(안자·자사·증자·맹자)의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지은 사당이다. 1701년(숙종 27) 성균관 대성전 서북쪽에 세워졌으나 1739년 영조는 전국의 향교에 계성사를 세울 것을 명령하고, 20년 뒤인 1759년에 사액(賜額)하였다. 향사의식은 성균관의 예에 준하였다.⁴⁶⁾

강점 직후 총독부는 문묘 석전의 대상을 대성전에 한정하고, 동·서 양무와 계성사에 대해서는 폐지하였다. 병합 직후인 1911년 봄에 거행되었던 춘계 석전제에서는 대성전 제향과 함께 동·서 양무 및 계성사에서도 향사가 거행되었는데, 같은 해 추계 석전제부터는 대성전에만 향사가 거행되고 동·서 양무와 계성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⁴⁷⁾

향사 폐지 당시 유림들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⁴⁸⁾ 양무와 계성사의 향사는 이루어지지 않다가 1922년부터 다시 부활되었다. 1921년 1월에 경학원에서는 양무 및 계성사 향사에 대해 유림들이 ‘간간이 물의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향사의 부활을 총독부에 건의하였다. 같은 해 3월 7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회의에서 양무 및 계성사의 제사 부활을 의결함으로써,⁴⁹⁾ 양무와 계성사의 향사는 1922년부터 다시 거행되었다.⁵⁰⁾

양무 및 계성사에서 향사의 부활은 1919년 3·1운동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들 향사의 폐지에 대해 유림계의 반발이 있었던 터에, 총독부로서는 3·1운동을 경험하면서 ‘효과적인’ 식민통치를 위해서는 전국적인 유림세력의 지지가 무엇보다 필요했으므로, 유림세력의 인심을 고려하여 문묘의 양무 및 계성사에서 지내는 향사를 재허가한 것이다.

46)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계성사」.

47) 조선총독부, 『經學院享祀關係』, 1911-1913, 369쪽 및 571-572쪽.

48) 조선총독부, 『經學院書類』, 1920-1927, 494쪽.

49) 조선총독부, 『經學院書類』, 1920-1927, 575쪽, 「문묘 兩廡의 제사에 관한 打合會」.

50) 西村綠也, 『朝鮮教育大觀』, 1932, 제2편 제9장, 15쪽; 「經學院及鄕校文廟ノ狀況」, 『益山文廟例規』 1921년 양무와 계성사에서 향사 복원에 관한 총독부의 지시가 있었으나 전국의 향교에서 일괄적으로 복원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향교에 양무와 계성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4) 서고식(誓告式)의 추가

1930년대 후반은 중일전쟁의 발발로 전시체제기에 돌입한 시기였다. 따라서 일제는 전쟁 수행을 위해 많은 물적·인적 자원을 필요로 하였고, 내선일체를 내세워 조선인과 일본인이 동등한 처지임을 강조함으로써 조선인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하였다. 또한 그들은 일본과 조선이 동조동근(同祖同根)이라는 미명하에 조선인에게도 일본어의 사용을 강요하고, 신사참배와 창씨개명을 요구하는 등 황민화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사전에 정신무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띠고 있었다. 그래서 1937년 11월에는 매월 1일 혹은 15일을 애국일로 정하고 관공서·은행·회사·공장·각종단체·정동회(町洞會)·부락을 단위로 각종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정신의 작흥’을 기하고자 하였다.⁵¹⁾

한편, 경학원과 향교의 대성전에서는 중일전쟁에 참가하는 일본병사들의 무운장구를 비는 서원문(誓願文)을 서고하도록 했다. 먼저 매월 1일과 15일에 실시된 분향례와 매년 두 차례의 석전에서 서고식이 추가되었다. 서원문의 서식은 석전 제문에 준하여 임시 제작된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옮기면,

서원문

태평한 대동세상은 공자의 인(仁)에 기초하고, 동양 평화는 우리나라의 정신이다. 오직 저 중화민국이 대도(大道)를 그르치게 하여 예의가 모두 없어지고 윤리강령이 땅에 떨어졌다. 같은 인종, 같은 문화권인데도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망각하고 신뢰를 어기고 적의(敵意)를 드러내고는 번번이 모욕을 주는 것이 많았다. 국시(國是)는 선린에 두었으나, 국시를 지켜나갈 수가 없다. 위 아래로 힘을 합쳐 온 국민이 모두 한마음으로 저들에게 노여워할 만한 것이고, 나에게는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차질없이 계획대로 몇 차례 정벌하여 반드시 응징하고야 말리라. 하늘의 태양이여 굽어살피셔서 나의 이 맹세를 도우소서.

51) 김명우, 앞의 논문(2008), 32쪽.

라고 되어 있고, 말미에서는 ‘하부군도(何府郡島) 유림일동’으로 끝났다.⁵²⁾ 경학원에서는 오전 7시부터 명륜학원 직원 강사와 경학원 강사 및 기타 유생 등이 1일과 15일의 분향식에서 서고했고, 전국 각지의 향교에서도 서고가 행해졌다.⁵³⁾ 한편, 경학원 대제학이 1937년 9월 28일 향교직원 앞으로 보낸 「서고문에 관한 건」⁵⁴⁾에 의하면, 10월 15일에 거행되는 문묘 석전에서 음복례 후 변두(鑊豆)를 철수하기 전에 서고식을 행하도록 지시했다.⁵⁵⁾

이로써 일제강점기 경학원과 향교의 문묘에서 거행된 제례에 기존의 ① 분향례, ② 작헌례, ③ 고유제, ④ 위안제 외에 ⑤ 서원제(誓願祭)가 추가되었다. 무라야마 지준은 일제강점기 향교 제례를 소개하면서, 서원제에 대해서는 “전쟁개시·출병 등의 대사(大事)가 있을 경우에 행했다. 1937년에 발생한 지나사변 때에도 서원문을 제작하여 매월 삭망에 제례를 거행했다”라고 언급,⁵⁶⁾ 서고제가 중일전쟁을 계기로 실시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5) 문묘와 석전 행사의 일반인 출입 허용

앞에서 언급했듯이 문묘는 유교의 총체적 상징으로,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성현을 받드는 사당이고, 석전은 이들 유교성현을 봉사하는 유교제례이다. 전통적으로 성균관 대성전에서 거행되는 석전은 국왕이나 왕세자가 친재하거나 예조판서가 대행하였다. 지방 향교의 석전은 지방 수령이 반드시 엄수해야 할 제사 가운데 가장 큰 제사로, 지역 유림들이 참여한 행사였다. 거기에는 행례 절차뿐 아니라 참여하는 인원, 절차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정이

52) 村山智順, 『釋奠・祈雨・安宅』, 1938, 『韓國近代 民俗・人類學資料大系』 7, 民俗苑, 2008), 24~25쪽.

53) 『조선일보』, 1937년 8월 18일, 「時局에關하여 文廟에誓告」.

54) 『益山文廟 諸關係書類(1937년)』 總304호, 「誓告式에 關한 件」.

55) 서고식의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헌관 모두 4배 ○誓告禮를 행한다. ○謁者が 초헌관을 안내하여 신위 앞에 나아간다. ○끓어앉는다(이때 總員 기립한다) ○誓願文 誓告 ○謁者자 초헌관을 안내하여 내려와 본래 자리로 돌아온다. ○단, 笏記는 옛 식에 의한다.” 『益山文廟 諸關係書類(1937년)』 總304호, 「誓告式에 關한 件」.

56) 村山智順, 『釋奠・祈雨・安宅』, 1938, 『韓國近代 民俗・人類學資料大系』 7, 民俗苑, 2008), 6~7쪽.

있었다. 따라서 문묘와 석전은 일반인들은 참여할 수 없는 지배계층의 공간이자 의례였던 것이다.

그런데 강점 직후부터 총독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불가한 성역이나 다름없던 문묘를 석전에 맞춰 개방해서 일반인의 출입을 허가했다. 석전에 참석한 조선인에게 순회강연을 하기 위해서였다.⁵⁷⁾ 봄과 가을 1년에 두 차례 거행된 경학원 석전에는 경성의 유림뿐 아니라 지방 유림들도 시찰단을 구성하여 참석하였고,⁵⁸⁾ 총독부 관료, 일본인 유지를 비롯하여, 학교 직원과 남학생, 여학생들도 문묘를 대거 방문하였다.⁵⁹⁾

더구나 1937년부터는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던 경학원 명륜당과 전국 향교를 개방해서 일반인이 자유롭게 참배하도록 했다. 종래 춘추 석전을 제외하고 일반의 출입을 금지하다시피 해온 ‘문묘를 개방하는 것은 무엄하다’는 일반 유림층의 반발이 있었으나, “유림층에서 보더라도 선현을 숭배하는 좋은 마음으로 일반이 참배하여 여러 가지 미풍양속을 조장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는 것이 총독부 학무국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⁶⁰⁾ 심지어 총독부는 경학원 명륜당과 향교를 결혼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당시 공개를 위해 경학원은 총독부 회계과에서, 지방 향교는 향교 재산으로 비용을 조달해 수선과 설비에 착수했다.⁶¹⁾ 이로서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성현을 받드는 사당이 있는 경학원과 지방향교는 혼례식장으로도 활용되는 등 일반인을 위한 문화 시설로 탈바꿈되었다.

57) 류미나, 앞의 논문(2010b), 106~107쪽.

58) 『매일신보』, 1914년 5월 6일, 「경학원시찰단 귀경」.

59) 『매일신보』, 1914년 3월 3일, 「文廟春享大祭舉行」.

1911년부터 1918년까지 경학원 문묘에서 봄과 가을로 매년 2회씩 거행된 석전의례에는 매회 평균 900명이 넘는 ‘관객’이 방문하였다고 한다. 지방 향교의 석전도 마찬가지였다. 향교에서 경학원과 총독부에 보고한 기록에 따르면 연 2회의 석전 참가자 수는 1911년 700명, 1912년 400명과 180명, 1913년 380명과 300명, 1914년 870명과 890명, 1915년 640명과 530명, 1916년 1170명과 760명, 1917년은 1700명과 2200명, 그리고 1918년에는 1380명과 2420명이었다. 류미나, 위의 논문(2010b), 109~110쪽.

60) 『조선일보』, 1937년 1월 24일(석간), 「經學院과 各地文廟」.

61) 『조선일보』, 1937년 4월 11일(조간), 「明倫堂과 鄉校를」.

4. 조선총독부의 지역유림 통제와 석전의 활용

이상으로 일제 강점기에 거행된 석전 의례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조선총독부가 석전의례의 변용을 통해서 조선 사회의 중심세력 이었던 유림들을 어떻게 통제했으며, 나아가 식민통치에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강점 후 그들의 ‘효과적인’ 식민지통치를 위해 유교를 적극 이용하였다. 그것은 유교가 여전히 조선인들의 정치·사회·문화 이데올로기를 지배하고 있고, 국민의 윤리도덕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⁶²⁾ 또한 양반·유림들이 향촌사회의 지배자일 뿐만 아니라 중앙의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계층이었으며, 향촌사회의 자치와 문교(文教)·덕풍(德風)·산업의 중심세력으로서 실질적으로 조선을 지배하는 세력임을 인식하고 있었다.⁶³⁾ 조선에서 양반 유림 세력의 영향력이 쇠퇴하고는 있었으나 그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는 점을 인지했던 것이다.⁶⁴⁾ 더욱이 일본의 강제 병합과정에서 유림의 강한 저항을 경험한 총독부는 유림들과의 관계 개선이야말로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총독부는 향촌 사회에서 지역 유림 집단의 집합체로서 존재하면서 지역사회의 여론을 주도해 온 향교에 주목하여 그 운영에 적극 개입하고, 식민지 지배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1910년 4월에는 학부 훈령 제2호와 조선

62) 조선총독부의 유교활용에 대해서는 류미나, 앞의 논문(2010b); 「조선의 ‘황도유학’ 전개 과정과 일본제국주의의 확장」, 『한일관계사연구』 63, 한일관계사학회, 2019; 정옥재, 「1920년대 식민지 조선유림과 일본의 湯道聖堂」, 『民族文化研究』 71, 2016; 앞의 논문(2014); 이명화, 앞의 논문(1993), 참조.

63) 이명화, 「조선총독부의 유교정책(1910~1920년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3, 88쪽.

64) 일본의 역사가이자 『讀賣新聞』 주필이었던 다케코시 요사부로(竹越與三郎)는 “양반은 어떠한 결함이 있어도 조선을 움직이는 정신 기력이므로 이 세력을 빼고 일본 스스로가 직접 통치를 행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는 일이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조선 사회에서 양반의 영향력이 여전히 있다고 보았다. 竹越與三郎, 『南國記』, 二酉社, 1910; 류미나, 위의 논문(2010b), 166쪽에서 재인용.

총독부령 제127호로 향교 직원은 향교 및 지방 문묘 사무에 관하여 지방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그 진퇴도 부윤·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집행하도록 했다.⁶⁵⁾ 또한 「조선총독부령 제73호」(1911년 6월 15일자)로 총독부로 성균관에 경학원을 설치하고,⁶⁶⁾ 같은 해 9월에는 성균관을 폐지했다. 총독부는 경학원을 지방 향교의 상위기관으로 두어 권한행사를 하게 했고, 이를 통해서 지방 유림들의 통제책을 마련하였다.⁶⁷⁾ 향교의 대성전에서 거행된 석전의식의 변화도 이러한 일련의 변화와 그 궤를 같이하였다.

먼저, 총독부는 경학원과 전국 각 지역 향교의 문묘, 즉 대성전에서 거행된 석전을 통해서 조선왕조의 권위를 소멸시키고 천황에 대한 숭상의식을 강조하였다.

초대 총독인 데라우치부터 경학원에서 열리는 석전의례에 총독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11년 9월 23일에 오후 8시에 거행된 경학원의 석전에서는 야마가타(山縣) 정무총감과 외지 참배인 등 4인이 참향하였다. 12월 21일에는 총독부에서 경학원에 성균관 건물과 부지의 무상사용을 허가했고, 성균관 소장 물품 및 서적, 제기, 교육품 등 총 949종에 달하는 물품을 증여했다. 다음 해인 1912년 3월 15일에는 이왕직(李王職)으로부터 석전에 사용할 제기, 악기 및 설비품 등 125종을 인수했다.⁶⁸⁾ 이로써 조선 총독은 조선국왕과 관리들의 국가적 대제인 석전을 장악하고 석전의 주관자가 되었다.

총독이 석전의 주관자가 되었다는 것은 기존 조선 왕실이 지녔던 권위를 총독부로 대체시켜 석전의례 속에서 조선 왕조 내내 면면히 지속해 온 전통적인 유교 전통을 배제함으로써 자신들의 통치 권력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행위였다. 즉, 조선왕조의 권위의 소멸을 가시화한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65) 『관보』, 융희 4년(1910) 4월 28일, 「학부훈령 제2호」; 『조선총독부관보』 호외, 1911년 10월 28일.

66) 「經學院規程」, 『조선총독부령』 제73호, 1910년 6월 15일.

주요 내용은 경학원에 성균관의 교육기능을 제외하고 단순히 문묘석전제를 봉행하고 각종 강연행사와 잡지를 발간하는 기능만 부여한 것이었다.

67) 당시 향교는 경학원을 상부기관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은 1920년에 들어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류미나, 앞의 논문(2005) 참조.

68) 『경학원잡지』 1, 1911, 45-57쪽.

는 총독부가 식민통치에서 유림들의 지지 확보를 위해 ‘고전을 중시하고 유학을 중시 여기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퍼포먼스이기도 하였다.⁶⁹⁾

그리고 제문에서 대한제국의 왕력의 사용을 배제하고 일본 천황의 연호를 사용했고, 조선 세종 대부터 지켜져 왔던 석전일의 음력날짜 대신 양력날짜로 표기한다거나 아예 양력 4월과 10월 15일로 정하여 석전일을 임의로 변경했는데, 이것 또한 조선 지우기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3·1운동 이후 유림들을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1920년부터 다시 복원되긴 했지만, 양무와 계성사의 향사 폐지도 양무에 종사되었던 ‘동방 18현’이 지니는 상징성으로 볼 때, 석전의례 속에서 면면히 지속되어 온 한국적 유교 전통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 내재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묘의 석전을 대중에게 개방함으로써 석전은 과거 ‘성스러운 제사의 장’에서 점차 단순한 ‘구경거리’로 전락했으며, 1937년에는 경학원 명륜당과 전국 향교를 개방해서 일반인이 자유롭게 참배도록 허가했고, 혼례식장으로 개방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총독부는 경학원과 향교의 문묘 개방에 ‘유교 보급의 완성’과 ‘신분평등’이란 당위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은 조선의 전근대적 사회 질서의 파괴를 의미함과 동시에 식민지 통치로 인한 새로운 사회의 등장을 가리키는 것이었다.⁷⁰⁾

이렇듯 총독부는 석전에서 조선의 전통적인 유교 전통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대신 천황제와 일본의 시정방침을 선전하는 장으로 석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1912년 9월과 1913년 3월 문묘 석전에서는 메이지 천황의 사망으로 아악을 금지하고 초헌관의 음복례를 폐지함으로써⁷¹⁾ 석전에서 천황에 대한 숭상의식을 공공연하게 강조했다. 1915년 추기 석전부터는 경학원을 시작으로 각 지역의 문묘 석전 의례에서 메이지 천황의 ‘교육칙어’가 석전의 정식

69) 류미나, 앞의 논문(2010b), 153~154쪽.

70) 류미나, 앞의 논문(2010a), 104쪽. 한편, 류미나는 위 논문에서 일본이 메이지 정부 수립 직후 에도시대의 공자묘를 개방함으로써 ‘국민통합’이란 목표로 단행되었던 것과 다르게 조선에서 문묘의 개방은 ‘통합의 매개’로서가 아닌, 조선인 내부의 분열을 야기시키는 통로가 되었다고 해석했다.

71) 『경학원잡지』 1, 1911, 51쪽, 53쪽.

의례 순서로 지정되고, 봉독되었다.⁷²⁾ 삼척문묘에서도 1915년 추계 석전부터 ‘교육칙어’가 봉독되었다.⁷³⁾

다음으로는, 석전의 거행을 강연회 등 각종 행사와 연계시키고, 석전 후 실시된 강연회를 통해서 식민지 조선인에게 식민지교육의 취지와 새로운 정책 등 시정방침을 선전·주지시킴으로써 일제의 식민통치에 순응하도록 하였다. 총독부는 밤중에 거행하는 것이 정식이었던 석전을 주간으로 바꾼 것은 일반 참배자를 위한 것⁷⁴⁾이었다고 했지만, 석전 후 전개된 강연회 및 각종 행사를 살펴보면 그것은 표면적인 명분에 불과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강점 초기부터 석전에는 도장관 또는 도장관을 대리한 참여관, 부윤·군수·면장, 부군청 직원, 보통학교 직원·학생, 경찰서원, 헌병대원, 지역유림 등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석전 후에는 강연회가 열렸다. 총독부에서는 1915년 10월 13일 「경학원강연 시행에 관한 요강」을 발하여 강연회를 마친 후에 강연 제목 및 청강자 수, 강연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였고,⁷⁵⁾ 이어 1918년 9월 7일에는 「경학원 강연 개량에 관한 건」을 발하여 경학원 강사들이 지방 순강을 할 때 대제학이 도장관과 협의하여 그 일정을 정할 것을 지시하는 등 강연 활성화 정책을 취하였다.⁷⁶⁾ 강연에 나선 연사로는 부윤·군수를 비롯하여 보통학교 교장, 향교 직원, 유림 등으로 다양하였다.

강연회에서는 조선총독부 훈령 또는 총독의 훈시 등을 강독하게 하여 새로운 정책을 전달하거나 ‘경학원과 향교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여 유풍(儒風)의 진흥과 폐속(弊俗)의 교정(矯正)을 장려하고자’ 하였으며,⁷⁷⁾ 김화군 금성문묘의 경우처럼 전매지국 출장소장 및 직원이 나와 연초 경작자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⁷⁸⁾ 결국 일제는 강연회를 통해 지역유림에게

72) 『京城日報』, 1915년 9월 14일, 「清境の秋肅かに大聖を祭る」.

73) 『경학원잡지』 8, 1915, 47~48쪽.

74) 村山智順, 『釋奠·祈雨·安宅』, 1938, (『韓國近代 民俗·人類學資料大系』 7, 民俗苑, 2008), 31쪽.

75) 『경학원잡지』 9, 1915, 51쪽.

76) 『경학원잡지』 19, 1918, 32~34쪽.

77) 『경학원잡지』 12, 1916, 86쪽.

78) 『경학원잡지』 22, 1922, 82~83쪽.

‘세계정세를 살피고 당국행정의 진의를 양해하고 순응하여 일반을 지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식민통치의 당위성을 선전하고, 조선인을 순종 내지 교화 시키고자 의도하였다. 따라서 석전제 거행을 강연회와 연계시킨 것은 일제가 유교제재인 석전을 식민통치 선전을 위한 인력동원 수단으로 이용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⁷⁹⁾

마지막으로,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총독부의 유림정책에 변화가 나타났고, 이러한 변화는 석전의례의 변화에도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총독부는 1919년 3·1운동에 놀라 식민정책을 ‘문화정책’으로 바꾸었다. 이때 일제는 식민정책의 협조 대상자와 이데올로기로 유림과 유학을 선택하였다. 1920년대에 친일유림단체가 우후죽순격으로 출현한 것도 그런 이유이며, 양무와 계성사의 향사 부활의 허용도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와 달리 1930년대는, 특히 후반기는 민족말살정책의 기초 위에서 유교정책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석전의 거행을 시국강연회와 연계하게 되었고, 유림의 동향 파악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에 앞서 총독부는 1936년 3월 경학원을 통해서 전국 향교로 하여금 각 지역 유림들의 명부 작성을 지시하고, 향교 석전에 참배한 사람들의 수를 조사·보고하도록 하였다. 조사 목적은 ‘유림동향을 참고하는데 크게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바로 그해 춘계 석전부터 참배 인원수를 보고하되, ‘다수, 여인(餘人) 등으로 쓰지 말고’ 정확한 숫자를 명기해서 통보하고 이를 정례화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하였다.⁸⁰⁾

1936년 8월 제7대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미나미 지로(南次郎)는 ‘지방의 현상에 대한 인식 배양’을 목적으로 조선 각지를 순회하며, ‘국체명징, 선만일여(鮮滿一如), 교학진작, 농공병진, 시정쇄신’을 내세우면서 ‘내선일체’의 실시를 재촉했다. 그 가운데 특히 국체명징의 방법으로 내세워진 것이 ‘일면(一面) 일신사(一神社) 건설’과 ‘문묘제전 참가의 장려’이다.⁸¹⁾ 이때 이루어진

79) 김명우, 앞의 논문(2008), 140~142쪽.

80) 『釋奠祭參拜人數調の件』, 『例規』(익산문묘).

81) 류미나, 앞의 논문(2007), 323쪽.

것이 문묘석전 시간의 양력으로의 변경으로, 총독부는 1937년부터 경학원과 전국 향교의 석전 시간을 음력으로 하던 것에서 바꿨다. 춘기석전은 4월 15일, 추기석전은 10월 16일로 고정시켰다.

이에 앞서 총독부 학무국장이 2월 12일 경학원에 보낸 통첩에는

경학원의 목적은 단순히 문묘에 제사 지내고 경학을 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정방침을 잘 따르게 하고 나아가 사회교화 보비(裨補)의 열매를 거두는데 있다는 것은 동원(경학원-인용자) 설립 당시에 있어서 이미 보였던 바로, 동원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로 시세에 비취 이번 석전 집행의 날을 고쳐서 양력에 의해 춘계는 4월 15일, 추계는 10월 15일에 집행하기로 하여, 금년(1937년-인용자) 춘계 제사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종래 석전은 이것을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에 행해 왔는데, 특별히 깊은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오로지 구관(舊慣)에 따른 것뿐으로 위 경학원의 처사는 시세의 요구에 적합한 시의적절한 조치일 뿐이다. 사회교화상 자못 의의 있는 일임을 인식함으로써 경학원과 그 목적을 같이하려는 지방문묘에서 춘추의 제사도 마찬가지로 위 기일(신사의 제전일과 중복되는 경우는 적당히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어 조정해도 무방함)에 이것을 집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 기회에 있어서 관계 유림은 물론 일반 민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구투(舊套)를 벗어던져서 공사 일상의 생활상 개선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시세의 진운에 순응해야 할 이유를 철저히 주지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란다.⁸²⁾

그 변경하는 이유는 종래 지켜오던 석전일과 제향일은 절기가 좋지 못하여 춘기는 몹시 추운 때이고, 추기는 몹시 더워서 불편하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로, 공사 간에 일반 양력을 시행하고 오는 이때이므로 석전과 제향에도 양력으로 통일해야 일정한 날짜로 하자는 것이 또 한 가지 이유이다.⁸³⁾

82) 『昭和 12年 2월 12일 學秘 제9호 總督府學務局長通牒 釋奠期日ヲ陽曆ニ改正ノ件』, 『例規』(익산문묘).

83) 『조선일보』, 1937년 2월 15일, 『釋奠과 祭饗日을 陽曆으로 改定』.

라고 하여, 기존의 석전 기일은 구관에 따른 것뿐으로 특별히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석전 일자를 양력으로 바꾸는 것은 사회교화상 의의가 크며, 이 기회를 통해서 유림 및 일반 민중들이 구투(舊套)를 벗어던져서 공사 일상의 생활상 개선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시세의 진운에 순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더불어 “민중이 덕성을 함양하는 데에 힘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문묘에 참배하는 습관을 작성하도록 권유하도록” 향교 제례의 참석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다.⁸⁴⁾

1937년 일제가 정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조선총독부 직속기관이었던 조선중앙정보위원회에서는 유림을 대상으로 비상시국 선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학원과 전국 각지의 향교에서 일제히 시국에 대한 강연을 함으로써 일반 유림들에게 시국인식의 철저와 충후봉공에 대한 것을 환기시켰다. 그리고 매월 1일과 15일 분향을 할 때마다 서원문을 봉독하도록 함으로써 전국에 있는 ‘500 문묘’를 중심으로 ‘10만 유림’을 총동원하여 전쟁상황을 대비하도록 하였다. 또한 1937년 7월 7일 중국 화북(華北) 지방에서 일어난 제2차 중일전쟁에 대한 해외평론을 한글 혹은 한문으로 번역해서 각지에 있는 유림들의 기관에 배포해서 시국인식에 대한 관념을 환기하도록 하였다.⁸⁵⁾ 그리고 같은 해 가을 석전 전날인 10월 14일 전국 각 도에서 총독부와 경학원에 한 보고에 따르면, 각 문묘에서 시국에 대한 서원식에 13,000여 명이 참여했고, 155회의 강연회에 32,717명이 참석하여 청강했고, 황군위문금 국방비등도 15,000여 원에 달하였다.⁸⁶⁾

위의 사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석전은 기존의 제사로서의 기능이나 신성함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나아가 일제의 침략 전쟁과 식민통치에 철저하게 이용되는 형태로 변모하게 된 것이었다.

84) 『經學院講士ニ與ヘタル大提學指示事項』, 『例規』(익산문묘).

85) 『조선일보』, 1937년 8월 7일(석간), 「비상시국(非常時局)을 선전(宣傳)」.

86) 『조선일보』, 1937년 10월 15일, 「시국인식위(時局認識爲)해 지방문묘활동(地方文廟活動) 이백여회(二百餘回)의 강연(講演)」.

5. 맺음말

이상을 통해 일제강점기 향교에서 거행된 유교제례인 석전이 총독부의 유림정책 속에서 어떻게 변용되고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함으로써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문묘는 유교의 총체적 상징으로,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성현을 받드는 사당이며, 석전은 문묘에서 행해지는 유교제례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석전의 시행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시대부터 중국에서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문묘제도가 수행되었고, 더불어 석전이 봉행되었다. 철저하게 성리학적 이념에 입각한 사회운영을 지향했던 조선시대가 되면서 문묘와 석전의 전통은 더욱더 중시되었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문묘에서 거행하는 석전은 공자를 위시한 유교 성현들의 학문·인격·덕행·사상을 단순한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숭모하고 존중하여 스승을 높이고 진리를 중히 여기는 기풍을 체득하기 위한 향사행위였다. 따라서 석전은 조선시대 국조오례 중에 길례에 속하는 국가적 대제로, 성균관의 경우 국왕이 참여하고, 향교에서는 수령을 비롯하여 지역유림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유림에게 석전제에 참여하는 행위는 학문으로서 배우고 습득한 유교 성현들의 가르침을 체화한다는 교육목적을 실천하고 유교이념을 내면화하는 과정의 일환이었다. 문묘제도와 석전의 시행은 중국의 영향이지만 우리나라 문묘의 특징은 우리나라 18현이 중국의 유현들과 함께 종사되었다는 점과 문묘 종사에 주자학의 도통이 강조되었다는 점이 중국 문묘와의 차이점이다.

조선은 건국초기부터 석전을 국가에서 주관했다. 우리나라의 18현을 포함한 총 133명의 유교 성현들이 종사된 문묘에 국왕이 직접 행차하여 석전을 주재하는 것은 조선 왕조의 이념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자 조선왕조의 정체성을 내외에 선언한 것이었다. 일제는 통감부 시기부터 유림들과 그들의 활동공간인 향교에 통제를 가했다. 더욱이 병합 직후인 1911년 10월 28일 조선총독부령 127호의 문묘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향교가 총독부와 일본인 관리

들의 통제 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향교는 그 기능과 지역사회에서 역할 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으며, 향교의 대표적 제례인 석전제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먼저, 문묘 석전의 주관자인 제관 및 참여자에 변화가 있었다. 조선시대 석전은 국왕과 황제, 예조판서, 학부대신, 지방 수령 등이 주관자였고 일반인의 참석이 불가능한 양반·유림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런데 강점 후에는 그 주관자가 총독과 총독부 관리, 일본인 관리로 바뀌었으며, 향교가 총독부의 위임을 받은 부윤·군수의 관리하에 놓이면서 석전에서 일제에 협력하지 않는 유림들은 배제되고 이전에는 참석하지 못했던 구성원들의 참여가 정례화되었다.

둘째, 석전 제문의 왕력 표기 및 독축방식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석전 기일의 표기가 대한제국 황제의 연호에서 일본 천황로 바뀌어 표기되고, 그리고 석전의 거행이 야간에서 주간으로 옮겨졌으며, 석전일의 날짜 표기를 음력으로 정하되 날짜의 표기는 양력으로 하였다. 그리고 공자의 명칭을 ‘대성공자’로 축약·표기하였다. 그리고 중일전쟁 직전인 1937년에 축문의 독식이 정위 일독식으로 통일되어서 전국의 각 향교에서는 정위인 공자에 대해서만 독축하고 다른 배위(配位) 이하 각위(各位)에 대해서는 생략하였다. 1937년부터는 종래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에 지내던 석전 일자를 양력 4월 15일과 10월 15일로 정했다.

셋째, 강점 직후인 1911년 춘계 석전부터 양무 및 계성사에서의 향사가 폐지되다가 1922년부터 다시 재개되었으며, 넷째, 중일전쟁 발발에 앞서 총독부는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사전에 정신무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석전의례 중에 서고식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경학원과 향교의 문묘 개방과 일반인 출입의 허용을 들 수 있다. 총독부는 강점 직후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불가한 성역이나 다름없던 문묘를 개방함으로써 대중 공공장소화 하였다. 심지어 1937년 1월부터는 경학원과 향교가 혼례식장으로 활용되어 일반인을 위한 문화시설로 탈바꿈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 석전의례의 변용은 총독부가 ‘원활한’ 식민통치를 위해 유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석전의례 속에서 조선 왕조 내

내 면면히 지속해 온 전통적인 조선의 유교적 전통을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자신들의 통치 권력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행위 속에서 전개되었다. 심지어 강점 직후부터 문묘의 석전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1937년부터 경학원 명륜당과 전국 향교를 개방해서 일반인이 자유롭게 참배도록 허가했고, 혼례 식당으로 개방하기까지 한 조치에 대해 ‘유교 보급의 완성’과 ‘신분평등’이란 당위성을 부여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조선의 전근대적 사회 질서를 파괴함으로써 신민지 통치를 ‘근대화’로 미화한 것에 불과했다.

특히, 1937년 중일전쟁 발발에 앞서 총독부는 전국 유림들의 동향 파악에 더욱더 적극적이었으며, 석전의 거행을 강연회 등 각종 행사와 연계시킴으로써, 식민지 조선인에게 식민지교육의 취지와 새로운 정책 등 시정방침을 선전하여 주지시킴으로써 식민통치의 당위성을 선전하고, 조선인을 일제의 식민통치에 순종 내지 교화시키려고 하였다. 유림을 대상으로 비상시국 선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학원과 전국 각지의 향교에서 일제히 시국에 대한 강연을 하여 일반 유림들에게 시국인식의 철저와 충후봉공에 대한 것을 환기시키고 매월 1일과 15일 두 번씩 경학원과 향교의 대성전에서 서원문을 봉독하도록 하고, 전국 유림들의 명단을 조사하고 총동원하여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라는 등 시국인식에 더욱 철저를 기하였다.

이로서 석전은 기존의 제사로서의 기능이나 신성함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나아가 일제의 침략 전쟁과 식민통치에 철저하게 이용되는 형태로 변모하게 된 것이었다. 특히 전시체제기에 들어가면서 석전은 조선의 전통적인 본연의 모습은 상실한 채 총독부의 시정방침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전하는 장이 되어갔다.

본 연구에서 총독부의 유림통제 및 문묘 석전의 식민지적 변용과정을 살피는 과정에서 유림들, 특히 지방 유림들의 대응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참고문헌

- 『經學院雜誌』, 『益山文廟 例規』(개인소장), 『益山文廟 諸關係書類』(1937년, 개인소장).
 『官報』(대한제국), 『朝鮮總督府官報』, 『조선일보』, 『매일신보』, 『京城日報』, 『常變通攷』.
 『大東野乘』, 『牧民心書』.
 村山智順, 『釋奠・祈雨・安宅』, 1938, (『韓國近代 民俗・人類學資料大系』 7, 民俗苑, 2008).
 西村綠也, 『朝鮮教育大觀』, 朝鮮教育大觀社, 1932.
- 강대민, 『한국의 향교연구』, 경성대출판부, 1992.
 김명우, 『日帝 植民地時期 郷校 研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김용현, 『조선 성리학, 지식권력의 탄생』, 프로네시스, 2010.
 정옥재, 『한말·일제하 유림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9.
- 김영희, 「일제강점기 경학원 석전(釋奠)의 변화 양상 소고」, 『한국무용사학』 8, 무용역사기록학회, 2008.
 류미나, 「식민지권력예의 '협력'과 좌절-經學院과 향교 및 문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3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5.
- _____,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유림정책」, 『역사와 현실』 63, 한국역사연구회, 2007.
 _____, 「일본의 '공자묘 대중화' 정책과 조선 내 공자묘 인식의 변화-총독부의 공자묘 개방정책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64,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0.
- _____, 「19C말~20세기 초 일본제국주의의 유교 이용과 조선 지배」, 『동양사학연구』 111, 동양사학회, 2010.
 _____, 「조선의 '황도유학' 전개과정과 일본제국주의의 확장」, 『한일관계사연구』 63, 한일관계사학회, 2019.
- 박종배, 「조선시대 문묘 향사 위치의 특징과 그 교육적 시사-명·청시기 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4-3, 한국교육사학회, 2012.
- 이명화, 「조선총독부의 유교정책(1910~1920년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 1993.
 이왕무, 「조선후기 국왕의 文廟 행행의 추세와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93, 조선시대사학회, 2020.
 장재천, 「조선 성균관 석전의례악의 본질과 교화적 기능」, 『人文社會科學研究』 18, 용인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1.
- 정경주, 「한말 향교유림집단의 역사적 성격」, 『어문학교육』 12, 한국어문교육학회, 1990.
 정일균, 「일제의 무단통치와 경학원」, 『사회와 역사』 76, 한국사회사학회, 2007.
 정옥재, 「20세기초 일제협력유림의 경학원 활동」, 『한국사학보』 56, 고려사학회, 2014.
- _____, 「1920년대 식민지 조선유림과 일본의 湯島聖堂」, 『民族文化研究』 71, 2016.
 지두환, 「한국 문묘제도의 변천」, 『국악원논문집』 17, 국립국악원, 2008.

Symbolism of Seokjeon and the Colonial Transformation of Hyanggyo Seokje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CHANG Soon-soon

This study examines how Munmyo (Confucian shrine) Seokjeon was transform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as part of Confucian policies. Findings of this study include the following:

Right from the its beginning, the Joseon Dynasty supervised and operated Seokjeon directly. Two major differences between Confucian shrines in Korea and those in China were that 18 major Confucianists in Korea along with those in China were enshrined at Seokjeon and that ideas of Orthodox Neo-Confucianism were emphasized in Confucian shrine affairs. Confucian shrines were built up in various hyanggyos nationwide as well as Seonggyungwan so that rituals were held with Seokjeon on a national level, which represents the ideological nature of the Joseon Dynasty and proclaims the identity of the Joseon Dynasty in and out of the country.

Japanese imperialism controlled hyanggyos which were a space of activity for Confucian scholars since the period of the Residency General. Right after the Colonial Period began, hyanggyos were put under the control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and Japanese officials. As a result, there were significant changes in their functions and roles as well as those of Seokjeon.

First, there were changes in rite officiants and participants at Confucian shrines of Seokjeon. Second, indication of dates in memorial addresses of Seokjeon, ways of reading addresses, and dates were changed. Third, Yangmu and Gyeseongsa shrines were abolished temporarily. Fourth, an agreement

ceremony was added as part of Seokjeon rites. Finally, Gyeonghagwon and hyanggyo shrines were opened to the public.

Such changes were intended to imply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valued Confucianism for ‘smooth’ colonial ruling and to emphasize Japan’s present governance while excluding Confucian traditions of Joseon that had long been preserved in Seokjeon rituals. Furthermore, Seokjeon events were opened to the general public, and hyanggyos around the country as well as Gyeonghagwon Pyeongryundang became available as a wedding hall, which was to destroy the premodern social order of Joseon symbolized by Confucian shrines and to beautify the colonial rule as ‘modernization’.

Before 1937 when the Chinese-Japanese War broke out,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put forth more efforts to grasp movements of Confucian scholars around the country. Seokjeon was connected to various events such as lecture meeting with the intention of justifying the colonial rule among Koreans and induce them to obey Japan’s rulership, and further, to make full use of Korea for their aggressive wars and colonial rule in other territories. As such, Seokjeon lost its original functions for rituals as well as its divineness completely and rather became a space used by Japan to propagate their war of aggression actively.

Key Words : Confucian shrine, Seokjeon, Hyanggyo, Gyeonghagwon,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TAE-DONG REVIEW OF CLASSICS

Volume 45, December 2020

Special Issue

Study on *Indo*(人道) of Yugyobusikhoe(儒教扶植會)

SUH Junghwa

Symbolism of Seokjeon and the Colonial Transformation of Hyanggyo Seokje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CHANG Soon-soon

Establishment of Community in Jeonju-hyanggyo(全州鄉校) and Community Activities in Modern History

SEOL Juhee

An Essay on Confucian Network of Post-Confucius Society

HONG Seong-duk

A Re-discussion of Tao Yuanming's Family Standing: An Investigation Based on Official System

LIU Yi, CHOI Jiyoung

Articles

A Study on Diverse Characters Identified from the Prefaces and Epilogues of Gandokcheop (Book of Letters and Poems) and Ganchalseoshikjip (Book of Letters)

KIM Saemio

A Study on the Old Materials of the Taedong Center for Eastern Classics's Collections

LEE Jung-hyo, PARK Sun-hee

An Essay on the Author(s) and the Writing Period of the *Zhouli*(周禮)

KIM Jun Hyeon

On the Structure and Philosophical Significance of Park Se-chae's(朴世采) *Sim-Hak-Ji-Gyeong*(心學至訣)

LEE Chang-il

Shin Hudam's Way of Thinking in His Theory of Four-Seven

LEE Jaebok

The Life-Communal Goodness and Life-Aesthetics in *the Book of Changes*: An Integrated Boundary without any Division of Boundaries

KIM Yon-jae

Forgiveness Interpretation of East Asian Confucianism Studies

CHO Nam ho

The Preface to *Seongho saseol yuseon*(星湖僿說類選)

CHOI Chae-gi

A Partial Translation of *Zhouyimingyi*(周易明意)

BAEK Jonghak

Book Review: Critical Comments on *Zhouyimingyi*(周易明意)

BAEK Jonghak

Appendix

Translation

Book Review

THE TAEDONG CENTER
FOR EASTERN CLASSICS

